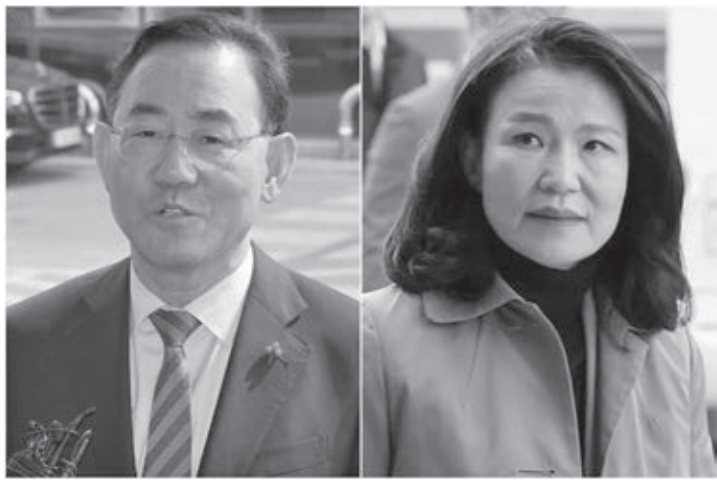


국민의힘 주호영·이진숙, 무소속 출마하나... '오리무중' 대구시장 선거

가처분 기각에 무소속 출마 시사 발언... '마이웨이 행보' 계속

민주당 공천장 받은 김부겸, 5일 민심 공략 본격화... 다자구도 형성 '관심'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호영 의원이 낸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국민의힘이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 6인 경선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대구시장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될지 안갯속이 놓였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이 주 의원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국민의힘이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컷오프 제심 청구도 기각함에 따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당초 계획대로 윤재옥·주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이 치른

다. 하지만 컷오프에 반발하는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이에 맞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등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주 의원은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오는 6일 법원에 항고하기로 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주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기각된 후 "시민 경선을 통해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도 두 사람은 대구시장 선거를 향

한 행보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주 의원은 가처분 기각된 후 지역 정치권 인사와 주요 지지자들을 만나 추후 입장 결정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오전 대구수목원을 찾아 시민들을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도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함께해 대구시장 여야 주자들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주 의원은 오는 8일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대구 반월당 네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벚꽃축제가 개최된 팔공산 동화지구, 부활절 전야 미사가 열린 대구 옥수성당 등을 찾았다. 5일에는 달성공원 새벽시장을 방문한 뒤 자신의 캠프에서 정책 토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인 일정상 이날 오후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구시장 선거를 향한 행보를 계속 중인 두 사람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대구시장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 등의 다자구도가 펼쳐진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이 후보가 대구시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은 (이 후보를) 국회에서 더 필요로 한다"며 이전 위원장에게 사실상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달라고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공천 내용으로 혼란스러운 사이 민주당에서는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 선거에 등판해 공천을 확정 짓고 첫 민주당 대구시장을 노리고 있다. 김 전 총리는 공약 준비와 조직 구성 등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날 대구스타디움에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 민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오는 9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적극적 정책 지원까지 등에 업은 그는 이미 지역 언론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구시장 인물 적합도에서 선두를 달리는 중이다. 이채봉 기자

한전-전력그룹사, 중동발전 위기 총력 대응 사장단 회의

기저발전 이용률 제고 및 설비효율 향상 등 전력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4월 3일(금) 오후 4시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에너지 절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 중동정세 관련 재무위기 대응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 한전의 고강도 에너지 절감 종합 대책 △ 에너지안보 위기에 따른 전력그룹사의 비상대응

전략 △ 에너지 대전환시대 대비 전력망의 과제 등 전력그룹사 공동의 주요 경영현안을 폭넓게 협의하였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경제 전 시상황'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환율과 국제 연료가격 급등이 재무 구조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하였다. 또한 전력공급 역량 극대화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그룹사 차원의 역량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먼저, 한전은 차량 2부제 적극 참여 및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전

사 에너지 소비 절감 등 자체 실천 노력과 함께, △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지원강화 △ 에너지 취약부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강화 △ 일반·산업·교육용 최대전력관리장치 지원 확대 등 대국민 에너지 절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온/오프라인 국민 밀착형 홍보활동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을 최일선에서 선도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전력그룹사 또한 발전소 소내 전력 절감, AI 기반 연료비 단가 예측 솔루션 고도화, 사옥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등 회사별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공유하였다. 한전 김동철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원안보 위기경보 격상 등 경제 전 시상황에 직면하였다"며,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정부의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솔선 수범하여 이행하고, 전력그룹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강조하였다. 이영진 기자

SKT-유한김벌리, 안동 산불 피해 복원에 맞선

4일 안동 풍천면 일대에서 나무심기 봉사... 구성원·가족 100여 명 참여



SK텔레콤은 유한김벌리(대표이사 사장 이재훈)와 함께 지난 4일 안동시 풍천면 일대에서 '산불 피해지역 평화의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풍천면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생태계 복구가 절실한 지역이다. 행사에는 SKT와 유한김벌리 임직원·가족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풀벌리의 먹이원인 헛개나무, 미선나무,

노랑무늬붓꽃 등 산림청 지정 희귀수종을 포함해 총 1,5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며 산림 생태계 복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양사가 체결한 ESG 실천 강화 포괄적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사는 ▲산불피해지 숲 조성 ▲자원순환 캠페인 ▲마케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양사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원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활동은 산림 생태계 복원 전문 NGO인 사단법인 '평화의숲'과 함께 한다. 아울러 SKT는 생태계 복원을 기술로 해결하는 스타트업 '인베랩'과 협업해 산불 피해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하며 피해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로 복원 대상지의 생태계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임종환 SKT ESG 추진실장은 "이번 나무심기는 안동 산불 피해지역의 복원을 일리는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 역량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의 생태계 복원과 과학적 산림 관리는 물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KB국민은행, 시민과 함께 가꾼 '창경궁 궁궐숲'으로 도심 생태계 복원

시민 참여형 궁궐숲 조성 및 체계적 관리로 도심 녹지 개선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
임직원 'KB Green Wave 마일리지' 기부금 재원으로 활용한 참여형 ESG모델 구축



KB국민은행은 식목일을 맞아 창경궁에서 진행해온 'KB Green Wave 궁궐숲'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KB Green Wave 궁궐숲' 사업은 시민, 공공기관, 기업이 협력해 도심 내 역사·문화 공간의 녹지를 복원하는 민관협력 ESG프로젝트다. KB국민은행은 2023년 이 사업을 시작한 뒤, 임직원의 일상 속 ESG 실천을 'KB Green Wave 마일리지'로 적립해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참여형 구조를 확립했다.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실질적인 사회공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든 결과다. KB국민은행은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및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손을 잡고 지난 3년간 총 2,860㎡ 규모의 궁궐숲을 조성하고 관리했다. 550주의 수목과 약 9,900본의 초화류를 심어 도심 녹지의 질적 개선에 기여했다. 이송원 기자

특히 청단풍, 진달래, 쪽동백나무 등 궁궐 환경에 적합한 14종의 수목을 엄선해 식재하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을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로 궁궐숲의 자연성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시민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봉사활동과 어린이·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며 환경 교육과 정서적 치유를 결합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궁궐숲 사업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ESG 실천과 시민 참여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포용적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참여형 ESG구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지속 가능한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송원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자격시험 현장체험 운영... 미래 항공인재 육성

항공자격시험장 시설 견학... 자격증명 제도 이해 및 진로 탐색 지원
학과·실기시험,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 운영 절차·시설 체험 호평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4월 3일(금) 서울 항공자격시험장(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한서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신입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 항공 인재 육성을 위한

「항공자격시험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항공 분야에 입문하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제도와 자격시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향후 항공 분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TS는 항공종사자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관문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제도 특강을 진행하여 자격 취득 절차와 함께 요구 역량을 설명했다. 이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학과·실기시험과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 실제 운영 절차와 시설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TS 시험 운영 업무 담당자와 참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질의응답 및 진로 상담을 통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득과 항공업계 진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나누는 현장 중심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한편, TS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항공 분야 전문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항공 전문 인력 양성과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항공 관련 대학교 등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항공자격시험' 등 고객 중심 서비스를 추진한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항공 분야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TS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운영기관으로서 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 항공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채봉 기자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어촌공사가 돕겠습니다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위한 설명회와 통합 컨설팅 진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촌공간계획의 활성화를 위해, 수립 주체인 지방정부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난개발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청년 창업, 재생에너지 등 기회의 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

부는 농촌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공간 관리를 위해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시행했다. 공사는 지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확산을 이끌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지방정부 담당자와 계획 수립 위탁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설명회'를 열고, 정책 방향 공유와 현장 지원 수업을 진행했다. 3월에는 30여 명의 전문가를 투입해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통합 컨설팅'을 진행했다. 공사는 지속 가능한 농촌 재생 모델 구축을 위해 현장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연내 3회에 걸쳐 추가 통합 컨설팅을 진행해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공간계획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농촌공간계획을 활성화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한다"라며, "농촌공간 재구조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주민과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활력 넘치는 농촌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